

유럽의 화장실 이야기

SEBERT 8243 류 호 준

유럽의 특징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의 3개국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청결하고 이탈리아의 경우 대부분 더럽고 불결한 공중화장실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상점이 오후 6시면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시간에는 한국과 같이 화장실 문을 폐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도 유료화장실 도입이 불가피

뒷사람에게 자신이 쓰고 간 흔적을 남기기 싫어하는 의식도 있지만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이 나쁘면 의심을 갖고 언론이나 의회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모든 국민들의 공중도덕이 투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인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적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유료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한 3개국은 사용이 유료이고 이탈리아의 경우 무료이지만 불결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 무료이지만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공중화장실 하면 불법 및 범죄장소라는 인식이 깊게 들어있습니다.

유료화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중화장실 특징

공항관리공단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자료를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요약하면, 대소변기가 우리와 달리 벽걸이형으로 벽매립 배관에 민벽 마감을 사용하는데 청소하기 편리하여 청결 상태가 유지되며 우리의 습식과 달리 건식 화장실의 구조로 바닥에 방수를 할 필요가 없고 개·보수가 쉬우며 소음을 차단합니다. 조명의 경우 형광등은 반투명 아크릴로 마감을 하고 꽃, 그림 등 화려한 장식은 대부분 없고 편리성 위주로 관리되어 별도의 소변기 설치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배려가 돋보입니다. 세면대에는 전기 면도기나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남녀 화장실 모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변기 위생시트 없어

한국에서도 가끔 듣는 이야기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에도 시트커버가 없어 위생에 민감한 사용자의 경우 변기 시트를 밟고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일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위생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만큼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실시하고 시간대 별로 점검 후에 상황판에 기록하게 되어있고 내·외부 색상이 일체감을 주기 위해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공항은 스위스 공항을 표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